



경의선 열차여행

최 성 수 (제우산업 부사장)



▲ 신촌역의 경의선 노선표

시각 한
 口 불 황
 이 계속되자
 해의 여행을
 자제하는 조
 짐이 나타나
 고 있다. 그
 래서 국내여
 행으로 대체
 하는 움직임
 이 나
 타나고

떠난다(토·일요일에는 신촌역 이
 용). 신촌역에서는 매시 8분에 발차
 한다. 신촌역에서 중점인 문산역(원
 래는 평북 의주)까지는 1시간20분 정
 도 걸린다. 요금은 1,500원.

신촌~가좌~수색~화전~강매~
 행신~능곡~대곡~곡산~백마~일
 산~운정~금촌~파주~문산으로 이
 어지는 이 열차는 강매역까지는 오른
 쪽으로 북한산 자락이 볼 만하며 그
 다음역인 행신부터는 차창 왼쪽으로
 드넓은 평야가 전개되어 도시인의 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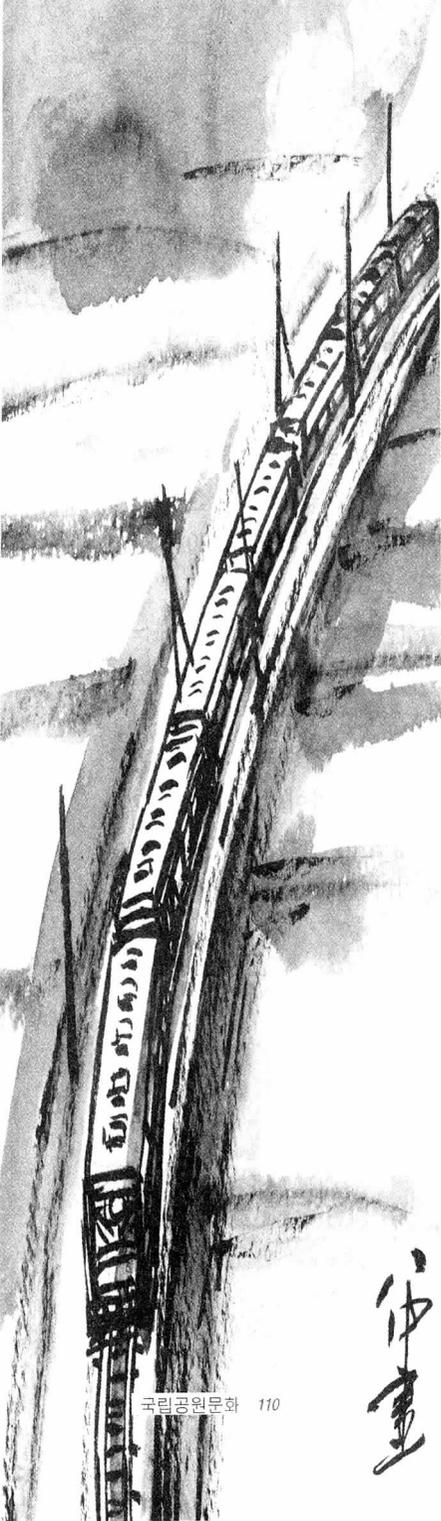
있는데 기존의 여행방법은 판에 박
 은 것이어서 여행동호인들의 구미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럴 때 서울 교외를 달리는 경의
 선 열차를 타면 만사가 거뜬히 해결
 된다. 이 열차는 봄에는 들꽃과 신
 록,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나목
 과 낙엽, 겨울에는 산야의 눈이 여
 행자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이 열차는 매시 정각 서울역에서



▲ 경의선 중점 문산역 이정표.
 더이상 갈 수 없어 여행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 김문식 화백(오른쪽과 필자)

든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다.

경의선 열차는 소요시간이 짧아 홍익회 운영이 안되므로 간단한 음료는 휴대해야 한다.

퇴직교수인 한모씨(78)는 광복전 고향인 개성에서 경의선을 이용해 연희전문에 다녔다고.

“반세기 동안 경의선 열차 주변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조용한 시골이었죠. 그러나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신촌역입니다. 시멘트로 허술하게 지은 건물이지만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열차에서 한 독서가 훗날 학자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서 지금도 가끔 경의선을 탑니다.”

경의선을 이용해 갈 때는 신촌역에서 타도 올 때는 신촌에서 내리지 말고 서울역에서 하차할 것을 권한다. 가좌에서 서울역으로 올 때 터널 4개를 통과하는 맛이
◀ 김문식 화백의 경의선 스케치 괜찮기 때문이다. ♪

한문식